

명청 사회를 놀라게 한 여섯 편의 장회
소설

(전의 부분.)

저희는 중국 역대 대표적인 문화 장르, 장회소설 탄생 배경과 장회소설 특징, 그리고 육대기서 소개 4부분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대 대표적인 문화 장르가 다 다릅니다. 선진시대에 제자백가의 산문이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배웠던 《논어》입니다. 남북조시기에서 아름다운 변문이 뛰어납니다. 한나라에서 한부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에서 이백과 도부 이런 시인들을 비롯하며 당시가 걸출한 작품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송나라에서 송사도 뛰어납니다. 원나라시기부터 잡극이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명청나라시기 산업경제의 발전때문에 장회소설이 역사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송나라부터 경제 중심이 남방으로 이동했잖아요. 명대 사회는 산업경제의 발전과

함께 시민계층이 크게 확대되고, 백화문을 사용한 통속적인 문학이라 할 수 있는 소설과 희곡이 발전한 시기이나다.사실 중국 고대 글을 쓸 때 다 문어문으로 썼지만 서로 이야기할 때 백화문으로 사용했습니다.이러한 통속문학의 발전은 개인의 양지 (良知) 와 정신적 자유를 제창했던 왕양명 (王陽明) 일파의 사상에 힘입은 바 큼니다.왜냐하면 이들은 모방을 일삼거나 상투적인 공허한 내용만을 글로 쓰는 당시 정통문학의 의고주의를 반대하고, 오히려 당시 시대상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소설이나 희곡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또한 명 중엽 이후 인쇄술과 출판업이 발전하면서 소설의 창작과 유통이 활성화되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이런 작자들은 지위가 낮지만 시민계층에서부터 지지와 인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관된 소설금지 정책을 실시해도 소설의 창작과 출판 및 유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소설장르는 장회 소설입니다.이 장회소설은 현대적인 개념이고 이런 백화문으로 쓰인 장편의 ‘장회체 소설’을 말합니다.당시 이 장편의 소설은 청중에게 들려주기 적당한 길이의 ‘장(章)’ 또는 ‘회(回)’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장회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비교적 쉬운 백화체로 쓰였으며 설화예술에서 많은영향을 받은 점은 ‘단편화본(話本)’과 동일합니다.송대 설화인의 ‘강설(講說)’ 가운데 장편의 역사이야기가 있고 이를 기록한 것이평화입니다. 평화는 송원시기의 진한서(秦漢書),삼국지(三國志),오대사(五代史)등 여러 역사기재에 근거하고 각종 민간전설과 허구가 가미되어 집단창작의 단계를 거칩니다.그리고 명대에 접어들어 문인작가에 의해 종합 정리 되고 창작되어 완성된 작품으로정착하는데,이 것이 바로 장회소설입니다.

장회소설을 보시면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째 장과 회는 설화인의 이야기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보거나 평서(評書)를 들면 마지막으로 항상 “뒷일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으면 다음 회를 보시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欲知後事如何, 且聽下回分解) 또한 사건을 서술하다가 갑자기 청중을 직접 부르면서 “여보게, 내말 좀 들어보소 (看官聽說)” 라면, 극중 인물에 대한 자신이 견해를 직접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술간섭’ 은 리얼리즘 계열 소설에서 지양하는 바이지만 강창의 영향을 받은 장회소설에서는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 삼국연의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대에 크게 유명했던 장회소설은 역사적 사건을 제재로 삼는 역사연의의 형태로 가장 먼저 출현했습니다. 그 효시가 되는 작품이 바로 <삼국연의>입니다.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삼국지연의> 三國

志演義> 혹은 <삼국지통속연의三國志通俗演義>이며<삼국연의三國演義>는 이를 간단히 부르는 명칭입니다. 작자는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원말 명초에 걸쳐 살았던 나관중(羅貫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영에 대해 동한말엽부터 위나라가 촉과 오를 복속시켰다가 다시 사마씨에게 정권을 내어주기까지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한 말은 황제권이 쇠락하면서 한 황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위, 촉, 오 삼국으로 분열돼 서로 패권을 다투던 시기입니다. 이야기는 유비, 관우, 장비가 한 왕조의 부활을 위해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유비가 덕목을 갖춘 인군으로 현상화된 유비가 신의와 용맹을 상징하는 관우, 장비와 더불어, 당시 정국을 주도하지만 '이'만을 추구하며 간신으로 형상화된 위의 조조화 내립투쟁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유비와 조조의 대립은 촉나라와 위나라의 대립임과 동

시에 유비로 상징되는 이상주의적 요가와 조조로 상징되는 합리주의적 범가의 대립이기도 합니다 .

그래서 역사관을 보시면 축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역사서술은 정사 삼국지를 비롯한 역사문헌이 위나라에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다른 역사관입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이 전환은 남송과 원대를 거치며 북방 이민족과의 투쟁과정에서 패배를 경험한 중국인들에게 새로이 형성된 역사의식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민족에 대한 저항의식과 영웅에 대한 민중의 기대심리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결론 내자면 <삼국연의>는 역사적 사건이 서술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대개 조대를 중심으로 시간적 순서대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호전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전》은 북송 연간 산둥지방에서 발생했던 송강 (宋江) 을 비롯한

36인의 봉기가 진압된 이후, 남송의 민간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전설, 희곡, 강창 등이 생겨나 원대 및 명대에 이르기까지 전승된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구전과정에서 의적(義賊)의 이미지가 더해지고 108명 영웅들의 이야기로 변모되어간 것이 바로 《수호전》이기 때문입니다. 작자에 대해 아직까지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시내암(施耐庵)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려온 소문에 따르면 시내암은 나관중의 학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국연의와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작품은 다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삼국연의》가 7할이 사실이고 3할이 허구인 역사소설이며 《수호전》은 사실에서 기원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허구입니다. 예를 들면 《수호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방랍(方腊)을 토벌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방랍 봉기한 사실이 있지만 송강과 관련이 없

습니다.

그리고 《삼국연의》의 서사가 사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수호전》은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송강(宋江)이나 무송(武松)이나 이규(李逵)나 노지심(魯智深) 등 인물 묘사가 매우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108명 영웅들은 사람마다 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승(關勝)의 별명이 대도(大刀)입니다. 이 대도는 큰 칼입니다. 왜냐하면 관승은 삼국 시기 유명한 무장 관우의 후예때문에 청룡 언월도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도란 별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화영(花榮)의 별명이 소이광(小李廣)입니다. 이광은 한나라 유명한 무장이고 활을 잘 쏘았습니다. 화영은 이광처럼 활을 잘 쏘기때문에 소이광이란 별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호전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서사의 중심이 역사적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웅적 인물의 활약상에 비중을 두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허구

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책 구성을 보시면 크게 두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08명의 영웅들이 양산박으로 모여들어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후반부는 양산박에 모인 영웅들이 조정에 귀정에 귀순한 후 황제의 명에 따라 요나라를 정벌하고 난을 평정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호전》은 예술적으로도 장회소설의 독특한 성취를 보여줍니다. 송강, 임충, 무송 등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가 매우 뛰어나며, 구성면에서는 각각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전기가 유기적으로 이어져 작품 전체와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송원화본의 전통을 계승하여, 민간 구어의 기초 위에서 탄생한 백화를 세련되게 다듬어 통속적이면서도 생동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한 문학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유기》 역시 《삼국연의》나 《수호전》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지만, 이야기 자체의 재

미를 추구한 허구성이 강조된 작품입니다. 《서유기》의 전반부는 돌에서 탄생하는 손오공의 비밀스런 출생부터 천궁에서의 소란 등 손오공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후반부는 사오정, 저팔계, 용마와 함께 손오공 일행이 불경을 가지러 서역으로 가는 삼장법사를 수행하면서 요괴들과 싸우는 81년의 극 복과정이 중심이 됩니다.

《서유기》는 표면적으로는 불교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초당의 고승 현장(玄奘, 600~660)이 천축(天竺, 현재의 인도)에서 불경을 가지고 왔다는 취경 고사에서 그제재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법사는 실제로 인도에 다녀온 후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를 남겼고, 그에 관한 기록은 《대자은삼장법사전(大慈恩三藏法師傳)》 등에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남송 때는 형장이 인도여행담이 《대당삼장법사취경시화(大唐三藏法師取經詩話)》하는 소설 형식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승은은 이런 작품을 모이고 다시

창작하고 《서유기》가 되었습니다.

(우문파 부분:)

금병매는 명대 장회소설 가운데 가장 늦게 등장한 “세정소설”의 창시가 되는 작품입니다. 금병매의 작가는 난릉의 소소생이라 하나, 본명과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전의 장회소설 대부분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거나 영향을 받아 오랜 전승과정을 거쳐 완성된 작품이라면, 금병매는 역사와 관련 없이 당시의 사회현실에 기초하여 개인 작가에 의해 창작된 최초의 장회소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설은 “수호전”에서 서문경이 판금련을 유혹하고 무대랑을 죽이고 무송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금병매라는 서명은 작품속에 등장하는 반금련, 이병이, 방춘매라는 세여성의 이름에서 한글 자씩 취한 것입니다. 즉 금은 돈을 뜻

하고, 병은 술을 뜻하며, 매는 여색을 나타냅니다.

금병매는 중국 고전소설의 최고봉으로 알컬어지는 “홍루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금병매가 없었다면 홍루몽도 없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유림외사는 청대에도 시민계층의 사상과 감정을 반영하는 특속적 문예형식인 소설은 크게 유행했습니다. 특히 명대의 금병매 이후,장회소설이 여러 세대를 걸쳐 전승되며 완성되는 세대누적형 창작형태에서 문인작가의 독립 창작으로 바뀌면서,장회소설 창작에 전념하는 작가들이 생겨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유림외사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풍지에 있는데 다양한희극적 요소와 비극적 요소를적절히 결합시켜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홍루몽입니다.

18세기 중반에 등장한 홍루몽은 청대 장회소설의 대표작일 뿐 아니라 중국 고전소설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홍루몽은 조설근이 미완성으로 남긴 서두기라는 초고의 형태로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

홍루몽은 출간 당시부터 수많은 독자들의 환영을 받았는데, 주인공 가보옥과 임대이구나 못다 이룬 사랑이 슬퍼며칠을 울다 숨진 소년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홍루몽은 여타의 세정소설처럼 대가정을 배경으로 하여 구성원간의 관계를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사회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청대 중엽에는 유림외사와 홍루몽 같은 작품이 창작되면서 장회소설이 내용면에서나 서사예술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작품이 창작된 청중엽이 장회소설의 최고 전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입니다.